

## 이달의 포커스 뉴스



한눈에 살펴보는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2P

코로나 전/후의 베트남 물류 이슈 REVIEW

20P

<김재홍 하나로TNS 본부장>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2
월간 뉴스 동향	12
프로젝트 동향	19
베트남 비즈니스 인사이트	20
<세무> COVID-19 이후 베트남 조세동향	조성룡 회계사 25
<노무> 채용시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유형	최지웅 변호사 28
<법률> 베트남 회사의 청산과 파산	김유호 대표 30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호아빈성>	33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39
아세안지역 거시동향 지표	43
공지사항 및 사업안내	44





##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 베트남, 세계 섬유 생산 및 의류 수출 1위국인 중국의 이상적인 대안으로 부상중
- 다자간 무역협정과 낮은 생산비로 인해 지난 5년간 연 평균 17% 성장률 기록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수출액 39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베트남의 두번째로 큰 수출분야임. 베트남의 섬유·의류 산업은 GDP 생산에 10~15%를 차지하고 있음. 낮은 인건비와 EU, 미국, 일본, 한국 등에 대한 섬유 수출 증가로 인해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분석됨.

### 가. 산업 특성

#### □ 정책 및 규제

- 2030년 까지 섬유·의류 분야 정책 방향

베트남의 2020-2030년 섬유·의류 산업 세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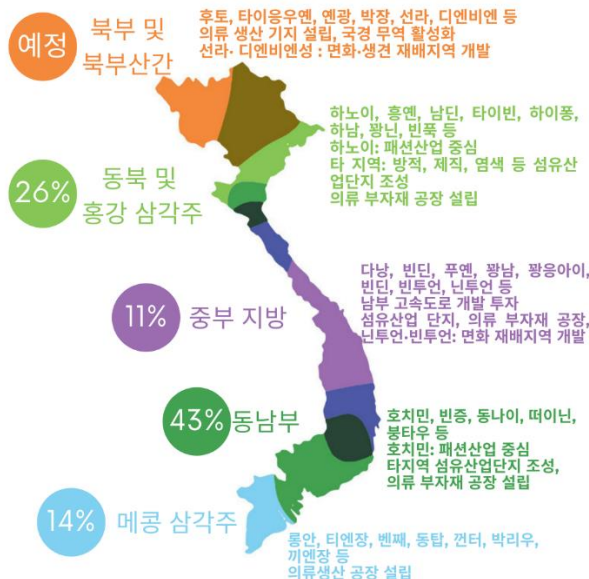
지표	2020년	2030년	주요 생산품	
			2020년	2030년
수출액	360억~380억 US\$	640억~670억 US\$	면섬유	1만 5천 톤 / 3만 톤
제조업 내 비중	13~14 %	9~10 %	섬유, 합성 섬유	70만 톤 / 150만 톤
노동 인력	330만 명	440만 명	방적사	130만 톤 / 220만 톤
현지화 비율	65 %	70 %	직물	20억 m <sup>2</sup> / 45억 m <sup>2</sup>
			봉제제품	60억 m <sup>2</sup> / 90억 m <sup>2</sup>

자료: 기획투자부

- 지역별 섬유산업 재배치 계획

#### 베트남 지역별 섬유·의류산업 분산 계획

(단위: 현재 운영중인 기업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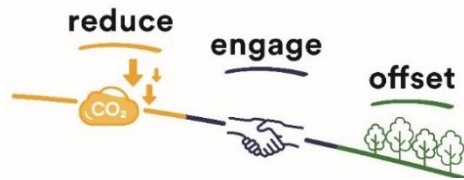
자료: 3218/QD-BCT,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최신 기술 동향

- 오스트리아의 FDI 기업인 렌징 그룹(The Lenzing Group),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TENCEL™(텐셀) 리오셀과 모달섬유 생산 성공. 렌징은 2019년 말, 2030년까지 특정 탄소 배출량을 50%까지 저감하고 2050년에는 탄소 제로화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음

Lenzing Group 의 무탄소 섬유 제조 계획



탄소 절감 - 환경 보호 - 삼림 보호로 이어지는 Lenzing Group의 환경 보호 캠페인

자료: Vinatex

□ 주요 이슈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베-EU FTA 효과
  - '19년 1월부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가 발효되었으며, '20년 8월 1일부로 발효된 베-EU FTA는 베트남 섬유, 의류 산업 수출 확대 및 투자유치를 위한 좋은 기회로 인식됨.
  - 베-EU FTA : 베트남은 10년, EU는 7년에 걸쳐 상대국 재화 대한 수입관세를 점진적 철폐할 계획 (EU: 발효즉시 70.3% 관세 철폐, 7년 안에 99.7% 철폐)
    - \* CPTPP 회원국 간 섬유·의류 제품 교역액은 연 4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섬유산업에 큰 영향
  -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인해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의 발주, 생산, 공급에 전반적인 문제 발생. 중국은 베트남의 주요 원자재 수입국이나 코로나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
-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류 생산에서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PPE)로 생산 전환
  - 베트남의 다수 의류 생산 업체들은 일시 중단 된 발주에 대처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급증한 기회를 잡기 위해 의류 대신 안면 마스크 및 보호용구 생산으로 태세를 전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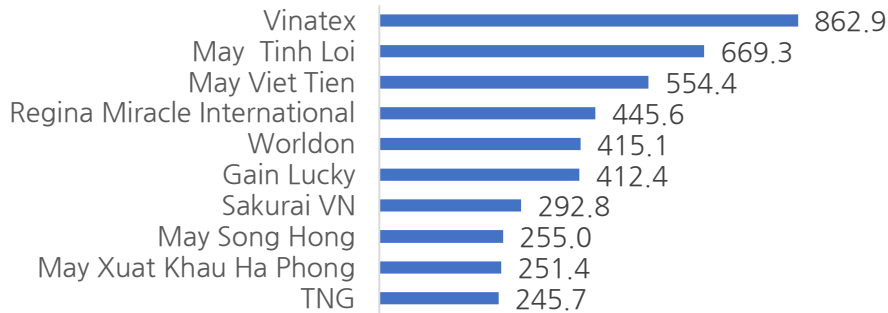
□ 주요기업 현황

○ 베트남 섬유·의류 주요 기업

- **(비나텍스)** Vietnam National Textile & Garment Group(Vinatex)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섬유·의류 생산업체 중 하나임. 비나텍스의 국영 지분율은 53.49%로서 2017-2020 국영기업 민영화 대상 기업 리스트(1232/QD-TTg)에 포함됨에 따라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 **(탄콩 섬유 투자 회사)** 탄콩 섬유 투자회사는 섬유 생산부터 재봉과 아웃소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커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섬유·의류 회사임. 특히 한국의 이랜드 브랜드 제품을 OEM 제조 하여 납품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의 약 25-29%를 차지함.

2019년 베트남 주요 섬유·의류 회사 매출 규모

(단위: US\$ 백만)



자료: 베트남 섬유·의류협회 (VITAS)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베트남의 주요 한국계 섬유·의류 수출기업

- 2019년 베트남 내 주요 한국계 섬유·의류기업은 Panko, 영원무역(The North Face), 세아산업, 한세산업 등이 있음.

2019년 베트남 내 한국계 섬유·의류 기업 수출 규모

(단위: US\$ 백만)



자료: 베트남 섬유·의류협회 (VITAS)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나. 산업의 수급 현황

### □ 섬유·의류

한눈에 보는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2019년 결산

- 수출규모: 미화 390억 달러
- 성장률: 2014년~2019년 6년간 연 평균 성장률 17%
- FDI 유치액: 2019년 한 해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FDI 유치액 미화 155억 달러, 총 184 프로젝트
- FDI 기업 비율: FDI 기업 총 수출액의 70%

자료: 베트남 통계청, 관세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2015~2019년 베트남 섬유, 의류 분야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8~19 증감율
수출	27,021	28,123	31,159	36,264	39,000	7.6%
수입	16,528	16,970	18,976	21,897	22,380	2.2%
수출생산용 원부자재 수입	13,184	13,646	15,544	18,354	19,265	10.2%
무역수지	10,493	11,153	12,183	14,367	16,620	15.7%

자료: 베트남 섬유의류협회 (VITAS 보고서)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첫 5개월간의 총 수출·입 액은 각각 123.6억 달러, 79.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5%, 14.4% 감소
- 특히,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하게 유행한 3월 중순 경 전체 의류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미국 및 유럽 바이어들의 잇단 주문 연기나 취소로 인해 베트남 섬유, 의류 기업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축소됨.

## 다. 진출 전략

- 베트남-EU FTA 섬유 교차누적 활용 및 한국-베트남-EU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지원을 통한 섬유제품 수출지원 (2020년 8월 1일부 발효)
- 베-EU FTA에서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차누적에 관해 규정함. 본 누적규정을 활용하여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단이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자료: 베트남 섬유협회, Euromonitor, Statista,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관세총국, Saigon Tex, Vietnam Int'l Textile & Garment Industry Exhibition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베트남 최근 외국인 투자 소폭 감소에도 추후 회복 기대

- 코로나 시기 소폭 감소했으나 꾸준한 유입
- 탈중국 글로벌 제조사들의 베트남 대규모 투자 여부는 아직 미지수

### 2020년 1~9월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FDI) 총괄

베트남의 2020년 1~9월 기간 중 FDI 유치액은 2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 감소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1~9월 기간 중 총 투자액은 3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4%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베트남 외국인 투자 동향

코로나19 대유행이 최고조에 다다른 2월 그리고 2차 대유행이 시작된 8월의 주요 국가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이나 3월 21일 베트남 정부가 실시한 외국인 입국제한 이후 투자활동이 멈추지는 않았으며, 주요국의 꾸준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 중국 외국기업들의 베트남 공장이전과 관련한 뚜렷한 징후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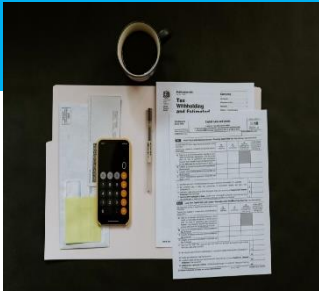
최근 베트남은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탈 중국 대체지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애플의 에어팟 무선 이어폰 베트남 생산, 아마존의 단말기 '킨들' 및 스마트 스피커 '에코' 베트남 생산 검토, 퀄컴의 중국 공장 베트남 이전, 일본 15개 전자, 자동차 분야 기업 베트남 공장이전 결정 등 주요 프로젝트가 베트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에 뒤쳐지는 내수시장(인구+소비력), 고속련 노동자 부족, 빈약한 부품소재 산업 기반 등은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 시사점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2차 팬데믹이 발현하며 원활한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주요 투자대상국 중 가장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책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지난 5월부터 제조업생산지수(PMI)도 반등해 베트남의 2020년 7월 기준 PMI는 작년 10월 수준으로 회복한 상황이다.

기존 최대 투자국인 한국과 일본의 중국 소재 기업들 역시 베트남으로의 이전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바 입국 제한이 완화되는대로 점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 대선에 있는 연말까지 해결 가능성이 낮으며, 탈중국 사례도 이와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베트남 정부의 노력(지원정책 강화, 산업 인프라 개선, 행정절차 개선) 여하에 따라 베트남이 탈중국 기업들의 최대 이전 기지로 올라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판단된다.





## EU-베트남 FTA 발효, 원산지 증명서 제출 후에도 검증 대비해야

- 원산지 검증 경험 풍부한 EU세관, 철저한 원산지 검증 대비 필요
- 원산지 검증, 수출신고 후 3년 이내에 언제든 가능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베트남에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EV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 변화를 환기하고 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지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항을 점검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이 의견을 교환한 현지 전문가 Bob Fletcher(Director)는 현재 Deloitte Vietnam 소속으로 유럽 및 아시아 지역 통관 관세 전문가로 활동하며, Eurocham 상임 고문직을 겸하고 있다.

### 새롭게 발효되는 EV FTA, 기존과 다른 원산지 검증 유의사항

#### (1) 원산지증명서 상 HS CODE를 표기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EV FT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인 EUR.1에 HS CODE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에는 HS CODE와 이에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반드시 표시해 원산지증명서 발행 신청해야 한다.

#### (2) 한국산 원단에 대해 교차누적을 적용하는 경우 베트남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절차

EV FTA 누적 조항에 따라 “한국산 원단”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된 61, 62류 의류 및 악세사리는 “베트남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수출업체는 수출되는 원단이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EU 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증명 문구를 기입한 상업서류(인보이스, Packing List) 등을 발행해야 한다. 한국산 원단 수입 시 발생하는 베트남 수입 관세는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로 면제 받을 수 없으며, 수출 면세 규정을 적용하거나 AK FTA(한-아세안 FTA) 또는 VK FTA(한-베 FTA)를 활용해 특혜 관세를 적용 받아야 한다.

#### (3) EV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행 가능 여부

EV FTA 원산지 규정 17조에 따르면 수출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V FTA 발효일인 2020년 8월 1일 이전에 베트남에서 수출됐지만 8월 1일 이후에 EU에 도착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발행할 수 있다.

#### (4) EV FTA는 원산지 검증 절차

EV FTA 원산지규정 30조에 따르면 EV FTA의 원산지 검증은 간접검증 방식이다. 수입국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무작위로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수출 관할 당국에서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를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제품의 특혜 관세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 (5) EV FTA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기 위한 주의 사항

EV FTA가 발효됨에 따라 EU 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MOIT 수출입 관리 부서에서 EUR.1 원산지증명서 발행 전 신청서 양식과 입증 자료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 확인하고 검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은 기업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FTA의 활용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출 후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원산지 검증 요청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경영층에서부터 사내 원산지증명 및 서류 보관 프로세스에 대해서 점검하고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에 대한 점검을 해 이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 베트남의 스마트팜산업 육성 및 투자정책

- 주요 기업들, 하이테크 농업을 통한 생산성 확대와 품질 향상 노력
- 정부, 외국인투자 절차 단순화와 인센티브 강화 검토 중

베트남은 지역에 따라 3모작이 가능한 국가이다. 이 때문에 많은 농·생명 연구소들이 베트남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농작물 생산성에 유리한 기후를 가진 베트남에서 기업은 전통농법에서 현대농법으로 진화해 생산성과 수출 규모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하이테크 스마트 팜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 및 개정하고 있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베트남의 하이테크 스마트 팜 농업 동향을 알아보고 한국에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어떤 분야를 고려할 수 있을지 검토해본다.

### 베트남, 2020년 9개월간 농산물 수출 305억5000만 달러 돌파

농업·농촌 개발부(MARD)에 따르면 베트남의 농업 수출 이익은 2020년 9개월 동안 1.6% 증가한 미화 305억5000만 달러로 올해 말에는 연간 목표인 4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8월 1일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EVFTA) 발효 이래 2개월 동안 대 EU국 농업 수출액은 7억663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 다낭시, 하이테크 스마트 팜 펀드 조성 계획

다낭시는 66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 팜 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다. 허브 농장, 가축 농장, 버섯, 유기농 채소 농장, 식품 가공공장, 수산가공공장 등의 5개 분야의 첨단 기술 투자를 통해 총 144헥타르 대지에 하이테크 농장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세웠다. 2019년 기준 다낭시에는 총 50개의 농장이 있지만 매년 14만5000톤의 해산물과 14만 톤의 야채를 소비하는 다낭시 인구 100만 명의 수요에 비해 공급 할 수 있는 생산량은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낭시는 하이테크 스마트 팜을 조성해 생산성과 자급률을 높이고 도시 GDP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국 스마트 팜 기업 하이테크 팜(Hi-Tech Farm (주)), 베트남에 스마트 팜 수출 성사

농업회사법인 하이테크 팜(주)은 한국의 ICT, IoT기술 기반의 스마트 팜 기술을 보유한 농업회사 법인이다. 하이테크 팜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 프로젝트에 참여, 'KOTRA', '전북 개발 특구', '국립 충남대 스마트 농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국내 대외협력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시사점

2019년 기준 베트남 하이테크 농업단지의 71%는 람동(Lam Dong) 성에 위치하고 있다. 농작물 생산에 유리한 기후를 가진 지방시·성이 도처에 있지만 첨단 농업 개발은 생태적 이점, 투자능력 및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분야이다. 정부는 이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재할당하기 위해 휴경지를 회수해야 하고 관련 기관의 경우 첨단 기술농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검토 보완 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정책적 한계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FDI기업이 농업생산을 원할 경우 토지 접근과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의 운송·물류 인프라는 아직 많은 투자와 건설이 필요한 부분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운송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 베트남 관광산업 현황

- 연평균 16%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입어
- 관광인프라, 온라인관광산업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관광산업 회복 기대

### 정책 및 규제

베트남 관광법(09/2017/QH14) 및 관련 시행령(168/2017/ND-CP 등)에서 관광산업 정의, 개발 방향, 라이선스 발급 절차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관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결서(08-NQ/TW)를 채택하며 기본 발전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2030년까지 총 관광수입 1,350억 달러, GDP 기여율 17% 등의 목표를 담은 '2030 국가관광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 시장 규모 및 경쟁력

베트남 관광수입은 2015년 15억 4,000만 달러에서 2019년 32억 8,000만 달러로 연평균 1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베트남 GDP기여도도 동 기간 6.33%에서 9.2%로 크게 상승하였다. 베트남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 중국 등이 전체 관광객 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형태를 띠고 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별 관광경쟁력(TTCI) 순위에서 베트남은 인터넷 개방성, 항공 인프라 분야에서 눈에 띄는 개선으로 2015년 75위에서 63위로 12단계 상승하였다.

### 기업 현황

2019년 기준 베트남 관광총국에 등록된 관광관련 기업은 여행사 2,667개사, 숙박업체 3만여(객실 65만개) 개사가 있으며, 이외에도 관광가이드 2만 7,863명이 등록되어 있다. 여행사는 2015년을 기점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연평균 11.3%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숙박업체는 베트남 내 호텔이 점점 고급화됨에 따라 2018년 대비 4~5성급 숙박업체는 약 13% 증가한 반면, 1~3성급 숙박업체는 14.1% 감소하였다.

### 유망분야

**(관광인프라)** 일부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집중되는 병목현상으로 환경오염 및 관광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관광총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관련 투자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관광)** 스마트폰 및 인터넷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관광소비(검색,예약,결제) 또한 온라인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행태가 트렌드화됨에 따라 온라인 관광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광산업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수요 축소와 베트남 정부의 강경책(입국 제한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은 374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5.8% 감소했으며, 관광 매출은 53.2% 감소한 10조 3,000억동(4억4,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베트남 관광총국은 F&B 및 숙박업체에 대한 부가세 감면 등의 금융지원책을 총리에게 제안했고, 이외에도 주요 지방성 시별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 베트남 소프트웨어시장 동향

- 디지털 전환 속도내는 베트남, 관련 공공부문 프로젝트 확대 전망
- 현지기업들의 빅데이터, 핀테크 등 첨단기술 해외 개발협력 수요 증대

소프트웨어 수출입은 1) HS Code 8523.49로 분류되는 CD, USB, 이동식 하드디스크와 같은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되어 거래되는 경우와 2) 이메일 전송, 웹사이트 다운로드와 같이 무체물로 거래되는 서비스 수출입으로 나뉜다.

### 시장 규모 및 동향

2019년 12월 발표된 베트남 정보통신기술(ICT)백서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IT 시장규모는 약 1,029억 달러이며 이중 소프트웨어는 전체 시장의 약 4.3%(44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인사관리, 통계 분석 등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Business Intelligence),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수입규모 및 수입국 동향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수입규모는 약 1억 달러(전자기록 매체 형태 + 인터넷 전송 등 무체물) 수준이다. 이중 USB, CD, 이동식 하드디스크 등 전자기록 매체에 저장되어 수입되는 소프트웨어는 2018년 기준 1천 600만 달러 규모로, 지난 2014년 1천 300만 달러 대비 약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싱가포르,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이 있다.

### 경쟁 동향 및 주요 기업

베트남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웃소싱 및 시스템통합 등의 IT서비스 공급을 수익 모델로 하고 있으며, 인텔, IBM 등 해외 IT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강조됨에 따라 아웃소싱에 집중하던 기업들이 핀테크와 같은 첨단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 유통구조

수입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는 전문 현지딜러(Local Agent)를 통해 최종소비자인 기업에 판매된다. 현지 소프트웨어는 개발사의 영업부서에서 고객사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에이전트, 동업자들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 관세율 및 규제

소프트웨어를 전자기록 매체에 담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반 상품무역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 경우 관세율 0%에 해당되어 실제 관세액은 없다. 이메일 전송 등과 같이 온라인 무체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 납부 의무가 없다.





## 베트남, 팽창하는 국제대학 교육시장

- 2025년까지 인구 1억명 돌파를 앞두고 황금인구 시대 도래
- 코로나 19로 해외유학 준비생들, 베트남내 국제대학 진학현상

### 2025년 까지 인구 1억명 돌파를 앞두고 황금인구 시대 도래

베트남은 2025년까지 인구 1억 명 돌파를 앞두고 ‘황금인구 시대’ 에 도래해 있다. 2019년에 시행된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구는 9620만 8984명이다. 2020년 4월 세계은행은 베트남 인구의 70%는 35세 미만, 중산층은 현 인구의 13%를 차지한다고 분석했으며 2026년까지 26%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불확실 성은 베트남의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은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는 베트남의 일반 학교에서 베트남의 국제학교, 직업훈련학교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인구의 70%를 이루는 35세미만 젊은층과 함께 팽창하는 베트남의 국제대학 교육시장에 대해 살펴본다.

### 도시인구의 성장과 국제교육 수요의 증대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 상황에서 선진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지만 베트남의 공교육은 질 과 양적인 면에서 모두 부족하다고 평가 받는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국내에서 공부하는 대신에 해외 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한다. 베트남에서 해외로 유학을 가는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국 비 유학생의 비율이 높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자비 유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가구당 소득수준이 높아지 면서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요가 증가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글로벌 인재, 즉 해외 기업의 기준에 부합하는 숙련 노동자와 기술자가 배출되기가 힘들다고 믿는다. 새로 운 프로젝트에 공급할 수 있는 훈련·숙련 노동력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교육에는 적절한 대 안이 필요하다.

### 시사점

교육 분야 투자를 모색하기 위해 베트남에 온 투자자는 많지만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명성있는 국제학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기업들 역시 수익성이 높은 학교 브랜드에만 관심을 갖 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제대로 수익을 내는 국제학교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또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까다로운 베트남 정부의 조건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높은 초기 투 자자본과 세율, 높은 기준의 교직원 자격조건 요구와 복잡한 인허가 과정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망 설이게 만드는 장애요소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받는 국제 졸업장이나 증명서, 자격증 등은 세계 수 준의 공식 국제 교육 라이선스와 연결이 돼있기는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교육 커리큘럼과 통합된 상태는 아 니다. 국제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베트남의 공식 학위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런 장애물들을 개 선해야지만 베트남에 수준 높은 해외 고등교육 기업이 투자를 하고 교육 선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진다.





### ▶ 아시아 최대 물류·창고 기업인 GLP, 베트남에 15억 달러 투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신의 아시아 최대 물류·창고 기업인 GLP는 동남아 권역 물류 수요 증가에 대한 기회 창출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 GLP는 2022년 1분기 까지 하노이·호치민 3개 부지에 총 21만㎡ 면적의 물류창고를 설립할 계획임.
- GLP는 싱가포르를 비롯, 일본, 브라질, 폴란드를 포함한 세계 16개국에서 총 6,400만 개의 물류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시아 최대 물류·창고 기업인 것으로 알려짐.

[Vietnamnet / 10. 23]

### ▶ 하노이, 2021-2030 대중 교통망 확대 계획 발표

하노이 인민위원회, 2021-2030 도시 대중교통망 확대 계획 발표, 2030년 까지 교통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80-90%까지 확장하고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반경 500m 내에서 버스를 탈 수 있게하는 기준을 충족 시킬 계획임. 대중 교통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하노이 시는 건전한 버스업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버스회사의 대출 금리를 보조하여 버스 대수 확장을 조력할 것으로 알려짐. 교통 사고 방지와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교통 관리에 정보 기술 적용을 강화할 것이라 밝힘. 2030년까지 도로 혼잡을 막기 위한 도시 지역의 차량 통행료 징수가 강화되며 오토바이 금지 구역 설정도 실시할 계획임. 하노이 시는 베트남 정부에 EURO5 기준을 충족하는 버스 및 대중교통 차량 구매를 위한 ODA 대출 우선 순위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임.

[Hanoitimes / 10. 22]

### ▶ 베트남 총리, 삼성에게 반도체 공장 투자 제안

10월 20일 오후,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총리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함. 폭 총리는 삼성이 호치민시의 하이테크 파크를 수출 가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결의안을 발표함. 이날 면담은 베트남 측에서는 총리실, 정보통신부, 기획투자부, 재무부 및 박닌성 관계자들, 삼성 측에서는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이동훈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 최주호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짐. 삼성측은 2022년 말 완공 예정인 삼성 R&D 센터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짐.

[VNeconomy / 10. 21]

### ▶ 베트남 전자 상거래 분야, '20년 20% 성장 전망

베트남 산업부,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 시장은 연말까지 20% 성장하고 거래규모는 120억 달러에 달할 전망. 코로나19의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월-4월 기준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자상거래 기업의 57%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30% 감소했으며, 조사대상 기업의 24%는 매출액이 51% 이상 증가했다고 밝힘. 이 시기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래량이 2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주로 소액 구매를 선호한 까닭에 베트남 전자상거래 분야의 올해 상반기 수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6% 감소함. 베트남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률을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중 하나로 꼽히며 2025년 까지 매출액은 약 350억 달러에 이르고 동남아시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Vietnamnews / 10. 21]



### ▶ 베트남 2020년 3분기 GDP 성장률 2.62%, 9개월 평균 총 2.12%

통계청, 베트남의 3분기 경제 성장률 및 사회·경제적 통계 발표,

**(GDP 성장률)** '20년 9개월간 GDP는 총 2.12% 증가 (1분기 3.68%, 2분기 0.39%, 3분기 2.62%)

**(9월 한 달간 산업 생산 기여도)** 9월 한 달간 농림어업 부문 1.84% 증가, 13.62% 기여, 산업 및 건설은 3.08% 증가, 58.35% 기여, 서비스 부문은 1.37% 증가, 28.03% 기여함.

**(9월 22일 기준 시장 유동성)** 2020년 9월 22일 기준 시장 유동성은 2019년 대비 7.74% 증가함. 신용기관의 자본 동원력은 7.7% 증가, 신용 성장률은 5.12% 증가.

**(FDI 및 해외투자)** '20년 9월 20일까지 등록된 투자액 미화 212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8.9% 감소. 프로젝트는 총 789건 보고 됨. 반면 9개월간 베트남의 해외투자는 총 2억 6,830만 달러로 총 96개 프로젝트 보유.

[Saigon Times, 10.19]

### ▶ 베트남 은행산업, 2021년 반등 전까지 고전할 것

Fitch Solutions는 베트남의 2020년 신용증가율을 7%로 전망하며 전년 신용증가율인 13.7%에 비해 6.7%p 하락할 것이라 예상함. 베트남의 은행 수익 부분은 신용성장 둔화, 취약한 경제 환경의 자산 건전성 악화와 함께 손실 총당금 증가, 부채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해 2020년 악화 될 것이라 전망함. 그러나 2021년 부터는 자산 건전성의 개선이 은행 수익 회복을 뒷받침 할 것이라 전망함. 2020년 9월 22일 기준 신용증가율은 2019년 말 대비 5.1%에 불과 한 것으로 알려짐.

[Vietnamnews, 10.16]

### ▶ IMF 전망: 베트남,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GDP 4위로 부상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World Economic Outlook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2020년 1.6%, 2021년 6.7%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IMF는 2020년 베트남의 GDP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동남아에서 상위 4번째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함. IMF가 전망한 일부 ASEAN 회원국의 2020년 GDP는 인도네시아 1조 888억 달러, 태국 5,092억 달러, 필리핀 3,674억 달러, 베트남 3,406억 달러, 싱가포르 3,375억 달러, 말레이시아 3,363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짐.

[Vietnamnews, 10.16]



### ▶ 베트남 연봉 인상률 10년만에 최저 예상

최근 Talentnet-Mercer Total Remuneration Survey 16개 분야, 총 605개의 국내·외국계 기업에 재직하는 427,000명의 근로자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연봉 인상률은 외국계 기업 6.5%, 국내 기업 5.2%이 될 것이며 내년에는 각각 7%, 7.7% 이 될 것이라 전망함. 외국계 기업의 14%와 국내 기업의 34%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봉을 동결했다고 밝힘. 산업, 보험, 하이테크 및 생명과학 분야는 올해 각각 8.7%, 8.5%, 8.4%의 연봉이 인상되어 다른 분야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드러남. 석유화학 및 광업, 은행업과 아웃소싱 산업은 각각 2.1%, 5.6%, 6.5%의 연봉 인상률을 보여 전년 대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임. 은행·비은행 금융 서비스 및 생명과학 분야는 각각 22.4%, 20.1%, 18.6%로 가장 높은 보너스를 받았으며 기술, 운송, 물류 및 소매업은 각각 13.8%, 13.6%, 12.5%의 보너스를 받아 보너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짐.

[Vietnamnews, 10.15]

### ▶ 베트남 2030년 까지 석탄·천연가스 수입 확대

산업무역부는 2030년까지 석탄, 가스, 천연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려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 밝힘. 베트남은 에너지 수출국에서 순수 수입국으로 전환중임.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25년까지 약 33-37%, 2035년까지 최대 50-58%가 될 것으로 전망 됨. 채굴비 증가와 채굴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국내 석탄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 석탄량이 증가함.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와 감소한 석탄 생산량으로 국내 석탄 생산량이 화력발전소 연료 양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알려짐. 또한 2022년 이후 동남권 가스생산 감소로 인해 천연가스 생산량이 2022년 110억 M<sup>3</sup>에서 2030년 30억 M<sup>3</sup>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베트남이 발전용 LNG를 수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2030년까지 연간 1,000만Ton 이상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됨.

[Vietnamnews, 10.14]

### ▶ 남부 산업단지 올해 9개월간 임대율 평균 84.5% 달성

CB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 주요 산업단지의 임대율은 올해 1월 - 9월까지 평균 84.5%를 달성 했으며 특히 호치민시는 임대 비율이 90%를 초과함. '20년 1, 2분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동나이와 롱안등의 남부 산업단지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3분기에 공장 소유주가 임대가격과 인프라 유지 관리비용을 10~30% 낮추고 임차인 지원 정책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CBRE는 신선식품 냉장 유통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냉장 및 냉동창고 개발이 향후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10.12]

### ▶ UOB, 2021년 베트남GDP 전망 6.6%에서 7.1%로 상향 조정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UOB(United Overseas Bank)는 2021년 베트남 GDP전망률을 당초 6.6%에서 7.1%로 상향조정함. 그러나 2020년 GDP성장률은 당초 3.5%에서 2.8%로 하향 조정함. HSBC도 베트남의 2020년 GDP전망을 3%에서 2.6%로 수정한 바 있음. 베트남 정부는 2020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을 2.5%-3%로 예상함.

[Tuoitre, 10.10]



### ▶ 베트남 남부지역 공단 토지가격 폭등

생산기지 이전 움직임으로 2020년 3분기 기준 베트남 남부지역 공단 토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30% 상승함. 부동산 업체 CBRE에 따르면, 지역별 공단 토지가격은 호찌민시 US\$300/m<sup>2</sup> 트롱안 US\$200/m<sup>2</sup> 스빈중, 동나이, 바리아-붕따우 US\$150/m<sup>2</sup> 수준임. 한편, 2020년 1~3분기 총 906ha 규모의 공단이 호찌민시, 롱안, 동나이 등 남부지역에 신규로 공급됨.

[VN Express / 10. 8]

### ▶ 베트남,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전월 대비 상승

베트남이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면서 제조업 역시 성장세로 돌아섬. Nikkei와 IHS마킷의 조사에 따르면 9월 베트남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의 45.7에서 6.5 포인트 상승한 52.2 를 기록함. 제조업의 생산량과 신규 수주량은 모두 증가했으며 감원율 역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의 유행 우려가 완화되면서 기업은 생산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신규 주문 역시 쇄도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9월의 제조업구매지수는 2020년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Vietnamnews, 10. 07]

### ▶ 2020년 상반기 베트남의 스타트업 투자 유치 분야 성장 둔화

Do Ventures의 2020년 상반기 베트남 기술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는 2019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에 22% 감소함. 베트남 스타트업 분야는 2019년 미화 8억 1,600만달러를 유치, 전년 대비 두배 이상의 투자 유치함. (TIKI, VNPAY, SENDO 등) 반면 2020년 상반기 투자 유치액은 2억 8,400만 달러에서 2억 2,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2% 감소함. 성장은 둔화되었지만 베트남의 스타트업 기업 투자 전망은 여전히 밝은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은 향후 12개월 간 투자를 검토할 때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선호하는 2위 국가임.

[Vietnamnet, 10. 07]

### ▶ 브랜드 간의 과열경쟁과 소비자의 낮은 브랜드 충성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자지갑 사업

CIMIGO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은 스마트폰에 평균 10개의 전자지갑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짐.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마다 높은 할인율, 할인 쿠폰의 유무와 쿠폰 적용의 편의성, 보너스 포인트 적립률을 각각 구분해서 각기 다른 전자지갑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JP모건에 따르면 전자지갑 서비스 브랜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정기적 프로모션 유무, 안전 및 보안, 다양한 은행과의 손쉬운 연결, 많은 사용처, 결제서비스 다양화 등. 전문가들은 전자지갑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며 몇년 전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경쟁과 유사해지고 있어 전자지갑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브랜드간의 인수합병과 자체 생태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Vietnamnet, 10. 06]



### ▶ 베트남 올 한해 수출 3천억 달러 달성 가능성 높아

코로나19가 세계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중에도 베트남은 올해 수출액 3천억 달러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산업무역부 수출입국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 9월까지 수출규모 2천 20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수출규모가 4%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국내 기업 수출 규모는 7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5%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 동력원으로 작용 함. 지난 8월 1일 발효된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EVFTA)으로 인해 자유무역협정의 인센티브 효과를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4분기에 수출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 8월 베트남의 EU 수출액은 32억 5천만 달러로 7월 대비 4.65% 증가하였으며 9월 수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함.

[Vietnamnet, 10. 05]

### ▶ 밀수된 전기자전거, 내수시장 지배

베트남에서는 매년 약 70만대의 전기자전거 및 전기 스쿠터(50cc미만)가 판매되나, 전문가들은 실제 판매 수치는 연간 100만대 이상이라고 추측 함.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는 최근 몇 년간 특히 교외, 농촌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그러나 베트남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일부는 밀수된 수입품이나 위조 제품인 것으로 알려짐. 밀수된 제품들은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수입되어 얼마나 판매되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임. 베트남 등기소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전기자전거가 총 5만 2,938대 조립·생산 되었지만, 등록된 수입자전거의 경우 40대에 불과한 수준임. 2018년 한 시장조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약 3백만대의 전기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있으나 정식 등록된 제품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Vietnamnet, 10. 02]

### ▶ 베트남 중앙은행, 경기 부양을 위해 10월 1일부로 기준금리 인하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9월 30일,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 함. 10월 1일부터 공개입찰금리는 종전 연3%에서 2.5%로 0.5%p 낮아지고 재융자율은 연 4.5%에서 4%로, 재할인율은 연 3%에서 2.5%로 낮아짐.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가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Vietnamnet, 10. 01]





## 日 스가 총리 아세안 2개국(베·인니) 순방 동향 및 시사점

▶ 日 스가 총리 취임 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첫 해외순방 실시(10.18~21)

### □ 베트남·인도네시아 방문 배경

-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고, 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한 결의 표현 차원
- \* '17년 日이 제시한 외교전략으로 美-日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민주주의 등 공통가치를 가진 인도·호주와 연계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목적
- 중국의 영해 침범 우려 관련 양국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도 有

### □ 주요 합의 내용

- (베트남) 에너지·인프라 분야 투자개발, 방위장비품 수출, 기술협력 등
- 경제 및 주요 산업 분야(디지털, 에너지, 환경, 공공인프라, 의료, 농업 등)
- 양국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총 40억달러 규모의 12건 협정\* 완료

분야	주요 협정 내용 (세부내용 비공개)
에너지	▶ 日도쿄가스 주식회사가 참여·건설 중인 19억 달러규모 1,500MW 가스화력발전소 ▶ 日마루베니 컨퍼시에 13억 달러규모 오몬 발전소 투자
상업지구	▶ 日이온몰, 호치민 Tu Du 신도시에 2억5천만 달러 쇼핑몰 건설
인프라	▶ 호치민 도시철도 건설 관련 사항
농·수산업	▶ 일본의 對베트남 굴 수출 확대 ▶ 가공 수산물의 수출시 검역 및 인증제도 단순화

- 국방·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방위장비품 이전 및 기술협력 촉진 협의
- \* 일본의 방위 장비와 기술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본 협정을 체결, 일본산 방위장비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법적 환경정비에 의의
- 그 외 입국금지 완화 및 비행재개 협의,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일본 거주 베트남 노동자 지원, 베트남 중부지역 폭우재해\* 긴급 구호 지원 등
- \* 베트남 중부 10개성에서 10월중 태풍과 홍수로 인해 사망자 100여명, 실종자 40여명 발생, 9만여명 대피



- (인도네시아) 베트남 다음으로 방문하여, △남중국해 분쟁 관련 중국 공동견제 및 안보협력 강화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는 철도·항만 인프라 개발협력,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경제지원 등 논의 예정
- \* 인도네시아는 '16년부터 남중국해나투나 제도 주변해역 관련 중국에 영유권 주장 중

## □ 국내외 언론 및 관계자 반응

- 베트남 현지 언론, 이번 순방을 코로나19에서의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및 일본 외교정책에서의 아세안 역할에 대한 감사표시로 평가, 양자 및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 표출
- 특히, 베트남은 '20년 아세안 의장국이자 유엔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일본의 아세안 정책을 확인하기에 이상적인 방문지로 선정했을 것이라는 분석
- 인도네시아는 투자청(BKPM) 특별 투자이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본기업들의 중국발 투자이전 수요를 적극 유치 중\*이며, 현지 언론은 이번 순방으로 일본 기업들의 투자이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Sagami Electric (전자부품), Denso (자동차부품) 등

##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일본과 양국(베·인니)간 국방, 안보, 경제 전반적 협력 강화를 통해 일본 기업의 양국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등 정책 환경에서 유리한 조건 조성 전망
- 베트남은 아세안, UN 등 다자협력체 내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 홍보를 약속하였으며, 일본은 내년 일-메콩 본 정상회의의 일본개최 등을 통해 FOIP 전략에서의 아세안 국가의 역할 증대 예정
- 남중국해 분쟁을 매개로 한 일본-양국(베·인니)의 중국 견제 기조가 지속되고,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양국의 중국 감시 역량 증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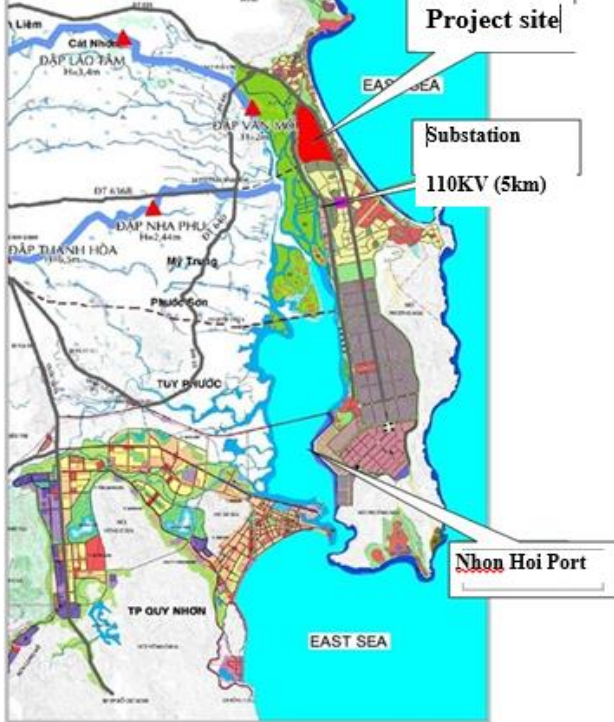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Phuong Mai 2 Solar Power Plant
- 하노이 1000tpd 폐기물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Hoa Lam-Tan Thanh High-tech Environmental Treatment Plant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Halcom Vietnam</li> <li>○ 웹사이트: www.halcom.vn</li> <li>○ 연락처: 84-24-3562 4709/10</li> </ul>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명: Phuong Mai 3 Solar Power Plant</li> <li>○ 현장위치: 베트남 Nhon Hoi 경제 구역, Quy Nhon시, Binh Dinh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약 100 백만 달러</li> <li>○ 프로젝트 재원: 발주처 펀딩</li> <li>○ 진행 및 예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S (진행중, 2021년 2Q 승인 예상) → 기술설계 (2021)</li> <li>→ 입찰 (2021년 4Q-2022년1Q) → 착공 (2022년) → 완공 (2022년 4Q)</li> </ul> </li> <li>○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태양광 발전소 건설</li> <li>- 총 면적: 123ha      - 총 용량: 130MW      - 전력생산량: 7,000 MWh/연</li> </ul> </li> </ul>



## COVID-19에 따른 베트남 물류 동향과 유의사항

HANARO TNS VIETNAM/본부장/김재홍

[JKIM@HTNS.COM](mailto:JKIM@HTNS.COM) / + 84 91 488 0079

### 1. 개 요

2019년 12월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리소문도 없이 전세계로 조금씩 퍼져 나가면서 2020년 1월 하순, 구정 연휴 종료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코로나는 전세계로 확산 일로에 접어들기 시작 하였다.

따라서 WHO에서는 3월11일에 세계적 대유행인 Pandemic 선언을 하였고, 베트남은 선제적으로 Pandemic 선언 전 2월 2일 일요일에 베트남에 거주하고 근무하다 중국 구정 연휴를 지내고 돌아오는 중국인 귀성객과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많은 중국인들로 인한 베트남 내 코로나 전파가 우려되어 전격적으로 2월 3일부로 중국과 국경무역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 중북부의 랑선(LANG SON)/중국 평상(PING XIANG) 국경을 시작으로 서북부의 라오까이(LAO CAI)/허코우(HO KOU), 동북부의 몽까이(MONG CAI)/동싱(DONG XING) 국경을 폐쇄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중국에서 출발하여 베트남에 도착하는 모든 화물선의 검역 및 방역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어서 한국의 대구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던 2월 29일에는 하노이를 향해 인천 공항을 이륙한지 40여분이 지난 아시아나 여객기에 대해 하노이 공항 착륙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 으로서 베트남의 물류가 운송 MODE 별 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코로나 이전의 물류 동향과 국경폐쇄 및 국제선 여객기 베트남 이·착륙 금지에 따른 물류 이슈를 Review 해보고 Pandemic 선언 7개월이 지난 현재의 상황과 아울러서 코로나 이후의 베트남 물류 동향은 어떻게 변하고 대응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코로나 이전의 베트남 물류 동향

#### 2.1 항공 수출·입 부문

베트남은 매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물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 장려를 통한 물류 인프라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송 Mode 별 Capacity는 비교적 수요 대비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오고 있었다. 다만 계절별 성·비수기가 확연하게 구분 되면서 성수기 때는 일시적인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이 동반 되었고 비수기에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수반되는 전형적인 시장상황을 유지 하고 있었다. 항공 수출·입에 대한 운송비에 대해서는 항공사 및 물류사 별 차이가 있기에 구체적인 시장 가격은 언급 하지 않도록 하겠다.



## 2.2. 해상 수출·입 부문

항공 수출·입 운송 Mode 와 유사하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 하면서 성수기 때는 장비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동반 되었고 특히 미주, 구주항 화물은 Transit 항구인 부산항, 싱가포르, 까오슝 항 등의 정체로 운송기간이 더 길어지는 현상이 초래 되었고 비수기 때는 선사들의 스케줄 조정 등으로 무난한 운송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참고로 베트남 발 미주 서부는 비수기 17~20일 정도 소요, 성수기 때는 평균 20~25일 정도 소요 되었으며 한국도착에 대해서는 성·비수기 구분없이 7일 정도 소요가 되었다.

## 2.3 육로(Cross Border Trucking) 수출·입 부문

베트남과 중국은 현재 상호 많은 수출입 교역을 하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의 제 1 수입국이자 제 2 수출국 이고 중국 대륙과 인도차이나 반도가 이어져 있기에 육로를 이용한 수출·입 운송의 비중이 크다. 본 운송 Mode 는 성·비수기 구분없이 비교적 원활한 운영이 되고 있었으며 베트남 발 북중국인 천진, 북경까지는 5~6일 정도 소요, 동중국인 상해까지는 3~5일, 남중국인 심천, 동관까지는 1.5~2일 정도 소요되었다.

## 3.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베트남 물류 관련 이슈 Review

### 3.1 전체 운송 Mode 별 이슈사항과 대응

#### (1) 2월 3일 중국국경 일시 폐쇄로 인한 육로 운송 수출·입 지연 이슈

국경에 도착한 긴급한 수입 자재는 홍콩 혹은 광저우로 돌려보내 항공 운송으로 일시변경 하는 방법으로 자재 수급을 하였으나 2월 5일 오후부터 일부 국경 재개방으로 점진적인 이슈 해결책이 마련되었다.

#### (2) 2월 20일 인천 발 하노이 착 여객기에 대한 하노이 공항 착륙 불허 이슈

본 이슈 발생으로 한국 발 베트남 착 전 여객기에 대한 운항이 중지되는 사태로 인해 물류 대란의 조짐 이 예고 되었으나 다행히 화물기에 대해서는 이·착륙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기에 Pandemic 선언 이전까지는 운송기간에 약간의 영향이 있었고,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운송비가 급격히 인상 되었다.

#### (3) 2월 4일 00시 부 중국 발 베트남 착 화물 선박에 대한 사전 검역 이슈

중국 착 하이퐁 착 화물선에 대해서는 하이퐁 인근 혼저우(Hon Dau)섬 에 1차 정박 후 선원 및 화물 에 대한 전면 검역 후 입항, 남부 호치민 착 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역 조치를 취함 으로서 운송기간이 평균 1일 정도 지연 되었고 선원들에 대한 도착 항 하선 금지조치도 단행 되었다.

#### (4) 3월 11일 Pandemic 선언 에 따른 이슈

WHO 의 코로나 Pandemic 선언이 있자 중국 및 한국 발 여객기 이·착륙 금지를 전세계 발·착으로 확 대함으로써 항공 수출·입 운송에 대한 차질과 가격 운송이 불가피하게 전개 되었다.



## 4. Pandemic 선언 이후의 현재 물류 동향

### 4.1 항공 수출·입 운송 부문

여객기 운항 중단에 따른 공급 부족 심화로 인한 가격 상승이 지속 되고 있으며 7월을 기점으로 가격 안정 세는 유지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보다는 미주, 구주향은 KG 당 5\$ 이상, 한국향은 1~1.30\$ 이상 상향된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 4.2 해상 수출·입 운송 부문

전반적으로 아시아 권역 내 Short Haul 구간의 운송은 운임 이나 공급 부문이 대동소이하게 큰 문제가 없으나 원양 Long Haul 구간인 미주, 구주 향 의 경우는 7월말 이후 중국발 미주향 화물 폭주로 인해 베트남에 는 컨테이너(Empty container)장비 수급 불균형이 더욱 더 심화 되어 공급부족은 물론 운송기간 지연이 초 래 되고 있다고 하겠다. 가격 또한 현재 거의 연중 최고가를 갱신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철저한 생산 계획에 따른 운송 및 Cost Control 이 필요할 것 이다.

### 4.3 육로 수출·입 운송

코로나 전 베트남 과 중국 구간의 운송 지연율은 평균 3% 미만 정도를 유지 하고 있었으나 2월 이후 9월 까 지는 평균 31%까지 상승 하여 운송 지연 일수는 3~4일 정도가 되었다가 9월 이후 10월 현재는 지연율이 10%대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연 일수는 1~2일 정도로 비교적 안정권에 접어 들었다 하겠다.

특이한 점은 트럭 기사들에 대한 방호 규정에 따라 현재에도 코로나 이후 셔틀 운송기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베트남 및 중국 국경 세관에 등록된 기사들이 국경을 오가면서 차량을 넘겨받고 넘겨주고 하는 형태 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평상시와 달리 이에 따른 추가 경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 이다.

## 4.4 현재 물류 현황에 따른 대안

### (1) 복합 운송(해상 및 철로 운송)

앞서 언급한 내용에 근거하여 실제 화주 입장에서는 물류 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 해야할 입장이기에 다음 운송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언급을 해 본다. 유럽 향 수출 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현재에는 해상 운송이 주 운송 Mode 가 되겠으나 철송을 통한 방법도 고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베트남 에서 동부 유럽 까지는 운송 기간은 해상 운송 대비 약 1주일 이상 단축이 가능하고, 운송비는 항공 대 비 저렴, 해상 운송 대비는 비싸다. 서유럽 착 의 경우 해상 운송 대비 약 5일 정도 단축 가능하고 중요 한 포인트는 해상 운송 대비 현재로서는 정시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하겠다.



**(2) 육로 운송 루트(Route) 변경을 통한 정시성 확보**

공식적으로 무역을 위한 베트남과 중국 국경은 현재 세 군데가 열려있다. 동북부에는 베트남 몽카이(Mong Cai)와 중국 동싱(Dong Xing), 중북부에는 베트남 랑선(Lang son)과 중국의 평샹(Ping Xiang), 서북부에는 라오카이(Lao Cai)와 중국의 허꼬우(Ho Kou)이다. 각 국경에서 취급되는 화물의 특성이 있지만 가장 활발한 지역인 중북부 국경의 현재 정세 상황을 감안 한다면 서북부 국경을 활용한 정시성 확보 방법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운송 경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범위 내 에 있다고 하겠다.

**5. 코로나 이후의 물류 동향**

베트남의 경제 규모나 성장세, 그리고 현재의 물류 환경을 감안 하였을 때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변화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할 것이다.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변화에 국한 되는 대처 보다는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의 물류가 글로벌 공급망에 커다란 리스크(Risk)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았고, 언택트(Untact), 온라인 화가 늘어나는 추세에 발을 맞추어 가야 하기에 물류도 스마트(Smart)화가 불가피 한 이 유다. 따라서 로봇, 무인자동차, 인공지능, IoT를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고 물류 창고도 디지털 화 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 이다.

원가경쟁을 위해 세계공장화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 및 제조업체들은 마찬가지로 코로 나로 인한 물류 대란을 직접 겪고 있기에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가의 소비재 생산은 생산기지를 주요 소비국가 혹은 자국내로의 이동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부가가 치가 낮은 소비재 생산은 공급 리스크가 있지만 현재의 생산 거점을 유지하되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공급체 인 구축을 구축하면서 물류 안정화 확보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된다.

**6. 결론**

코로나19 이전 과 현재의 베트남 물류 동향에 대한 결론은

**첫째,**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국가인 베트남의 대외적인 요인, 즉,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간접 수혜국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선호 1위국,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한 투 자 인센티브 정책 등을 감안한 물류 인프라 개선 사업에 정부 혹은 외국계 기업의 투자가 지속 되고 있어 변화에 잘 대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며,



**둘째**, 코로나19 라는 악재가 계속 성수기를 뛰어 넘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와 대응들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셋째**, 코로나 대응을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베트남은 대부분의 공장들이 Lock Down 없이 공장 가동율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에 물동량의 급감이나 급증은 없이 무난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생산 부문에 있어서도 코로나 상황을 비교적 지혜롭게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다만, 특정 지역의 구매자를 둔 영세 봉제 업체들은 소비시장인 미국 및 유럽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구매계약 취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코로나 반대 급부로 의료용품(마스크 및 의료용 장갑)으로 생산 라인을 전환 하는 해결책을 강구함 으로서 나름 위기를 극복 하고 있다고 하겠다.

베트남의 물류 동향은 한 마디로 코로나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나 물류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바 철저한 손익 관리를 통한 물류비 절감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다. <끝>





## COVID-19 이후 베트남 조세동향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조성룡회계사

csrgs@seouvietnam.com | 098-548-7377

### □ COVID-19 영향 토지사용료 및 세금의 납부연장

- Covid-19 pandemic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Decree41/2020/ND-CP에 의거 토지 사용료 및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 적용대상: 회사 및 개인 자영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자로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발생자

납부기한 연장은 다음과 같음:

- √ 부가세납부(수입부가세는 납부연장 없음): 매월 납부신고자는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분기별 납부 신고자는 1사분기와 2사분기 해당기간 매출부가세 납부를 5개월 연장함(2020년 9월 30일 및 2020년 12월 30일).
- √ 2019년 연간 확정 법인세와 2020년 1사분기와 2사분기 해당기간의 분기 예납액의 5개월 연장 (2020년 9월 30일 및 2020년 12월 30일).
- √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민간공단업체 납부하는 사용료는 해당없음) 토지사용료로서 연납금액이나 2020년 상반기 납부기한 토지사용료를 2020년 10월말까지 연장함.
- √ PMO로서 VAS를 채택하는 Hybrid방식 또는 Deduction방식의 외국인계약자세도 5개월 연장

### □ COVID-19 영향 복리후생비 및 근로소득 영향

- COVID-19 관련 발생비용의 법인세 및 근로세 처리방안
  - 대전제: 전체 근로자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방역관련 비용은 법인세법상 비용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로세 대상에서 면제됨.
- 의무격리기간중에 발생한 근로자의 격리관련비용
  - 근거예규: 박년세무서 2020년 7월 6일자 예규
  - 법인세 영향: 격리관련비용은 회사의 손금인정비용이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단, 적격세금계산서와 계좌송금거래내역을 제시해야 함. 격리관련비용은 회사의 업무관련비용임을 확인함
  - 근로세 영향: 격리비용은 근로자에 대한 급여성격의 복리후생비 지급이 아님을 확인함. 근로소득세 과세면제됨



- COVID-19 영향으로 Work Permit 없이 지급된 급여의 법인세 비용처리
  - 근거예규: 박년세무서 2020년 6월 25일 예규
  - WORK PERMIT 발행이 어려운 COVID-19영향을 반영해 Work Permit 없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COVID-19 휴무기간중의 급여지급기준으로서 2020년 3월 25일자 Official Letter 1064/LDTBXH-QHLDTL은 휴무기간중의 급여지급액에 대한 지침을 공표함. COVID-19 로 인한 휴무기간중 하기대상의 직원급여는 고용주와 직원간의 합의를 전제로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함.
  - √ 베트남으로 귀국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격리중인 근로자; 회사의 격리로 인하여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
  - √ 원재료 구입이나 매출격감으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사업장은 우선 전환할 수 있는 타 사업장이나 타 업무로 우선 전환함.
  - √ 회사가 근무중단으로 부도위기에 있을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법 제32조에 근거해서 고용계약을 상호합의 해지할 수 있음.
  - √ 사업감축으로 인력감축이 야기되면 노동법 38조의 근로계약해지 통지를 수행하고 노동법 44조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 √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합의하에 고용계약해지나 급여의 삭감을 논의할 수 있음.

## □ 2020년 조세변경사항

- 수출매출액의 인식시점의 법인세법상 규정 변경
  - 현행법인세법과 부가세법상 수출매출의 인식시점의 경우 부가세법은 수출통관완료시점이고 법인세법은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으로 규정함.
  - 재경부가 발행한 2020년 5월 7일자 Official Letter No. 5476/BTC-CST 은 법인세법상 수출매출의 인식시점을 부가세법과 일치시킴. 이는 INCOTERMS의 소유권이전시점과 무관하게 법인세신고시에 수출통관완료된 매출만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함.
  
- 파견계약을 통한 근로비용의 손금인정여부
  - 재경부가 발행한 2020년 5월 7일자 Official Letter No. 5476/BTC-CST 에 의하면, 파견계약서 (Assignment Letter)는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근로비용의 증빙서류가 아님을 확인함.
  - 따라서, 한국으로부터 파견온 파견임직원은 모두 베트남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을 작성 및 비치해야함.



○ 법인세감면 혜택을 가진 제조업자가 법인세 감면혜택을 가지지 않은 하청업체를 통해 하도공정을 수행한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에 미치는 영향

- 국세청의 2020년 8월 10일자 Official Letter No. 3218/TCT-CS에 의하면 법인세감면 혜택을 가진 제조업자라 하더라도 상기 하도급업체를 사용한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명기함. 하청기업을 사용하는 외국제조업체에 중대한 불이익 발생함.

○ 소프트웨어 제작업에 대한 CIRCULAR NO.13/2020/TT-BTTTT 공표

- MoIT는 2020년 7월 3일자 발행한 Circular No.13/2020/TT-BTTTT ("Circular 13")에서 소프트웨어 제작업의 결정방식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공함.

소프트웨어 제작업은 7단계의 업무과정을 거치게 되며, 법인세감면이 주어지며 이를 위해선 소프트웨어 제작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Requirement Identification" and "Analysis and Design"과정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함. 이는 Programming, Coding or Testing을 수행하는 회사라도 상기 두가지 과정중 최소 한 과정을 거쳐야만 소프트웨어 제작업으로 인정받음을 의미함.

- √ 해당 상기 두과정에 대한 진행업무 및 준비서류에 대한 지침서류를 Cir.13은 제공하며, 향후 세무조사 시에 해당 준비서류를 세무서의 요청시에 소명하여야 소프트웨어 제작업의 세제감면이 적용될 것 임.
- √ 소프트웨어 제작업으로 인정될 경우 현행 세법은 법인세 4년간 면제, 9년간 50% 감면하며 설립 후 15년간 10% 법인세율을 적용함.
- √ 시행규칙 시행개시 시점: 2020년 8월 19일 <끝>



법무법인 아세안

## 베트남 채용 시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유형 및 주의사항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jchoi@alfcounsel.com

베트남 노동법 제15조에 의거하면 베트남 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 근로조건, 근로관계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은 자발성, 평등, 선의, 협력 및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법률, 단체협약 및 사회윤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선에서 자발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베트남 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 사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간혹 베트남 신규취업자 중에 구두상 확약만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매우 간단한 약식 계약으로 베트남 노동법상 규정된 최소 정보가 불포함 된 각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베트남 법상 적법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단, 3개월 미만의 계약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이 아닌 구두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향후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관련 베트남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베트남 내 근로계약서는 A4 용지로 양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붉은 색을 제외한 필기구 또는 타자로 작성되어야만 하며, 근로계약 체결 일방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후면에 외국어로 병기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외국어 즉, 한국어로 병기 체결은 가능하나, 반드시 베트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으며, 일부 베트남 내 한국투자기업의 경우, 신규 취업자들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 베트남어는 불포함하여 한국어로만 구성된 약식 근로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베트남 노동법상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간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측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정관에 규정된 법률상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일부 베트남 내 한국투자기업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베트남 법인의 법적대표자(법인장)이 아닌, 인사담당 임원 또는 부법인장이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신규취업자는 자신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측 체결당사자가 반드시 법인장이거나, 법인장으로부터 별도 위임장을 득한 수임인이 체결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 체결 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수행하게 될 업무, 근무지,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위생, 임금, 임금 지급 방법, 사회보험, 의료보험, 경영비밀보호 규정 및 기타 근로자가 요구하는 근로계약 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반면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자신의 성명, 나이, 성별, 거주 주소, 학력 사항, 건강 상태 등 기타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계약 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베트남 내 신규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호 간 정보 공유 범위에 대하여 주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에 주지하여야 한다.

베트남 노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면 베트남 내 근로계약은 업무의 성격, 업무의 지속기간 등에 따라서 크게 3가지 근로계약의 형태 중 하나로 택일하여 체결이 가능하다.

**첫번째** 근로계약의 방식은 양 당사자들이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일을 정하지 않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에 해당된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없거나, 36개월이상 근로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두번째** 근로계약의 방식은 계약기간이 12개월에서 36개월 이내로 정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계약직’에 해당된다. 근로계약기간이 있거나,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세번째** 근로계약 방식은 12개월 미만의 일시적 근무를 위한 근로계약이다. 다만 이 경우라도 12개월 이상 지속될 업무임에도 12개월 미만의 일시적 근로계약 체결은 금지된다.

베트남 내 신규취업자는 상술한 3가지 근로계약 방식 중 하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 미만의 일시적 작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베트남 내 신규취업자 대부분이 체결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즉, 베트남 내 취업자들은 12개월에서 36개월 이내로 계약직 근무를 총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 체결되는 근로계약은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체결되는 점을 반드시 주지하여 자신의 노동법상 권리에 대하여 인지할 필요가 있다. <끝>



## 베트남 회사의 청산과 파산

로투비Law2B | 김유호 대표 | 베트남 법무부 공식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 1. 베트남과 코로나-19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의하면 2020년 7월까지 작년 동기대비 11% 증가한 약 63,000개 이상의 기업이 청산했고,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약 33,000개의 회사가 휴업을 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코로나-19의 영향이 클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 몇 개월은 버티던 곳도, 장기화되고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현 상황에 일단 휴업이나 청산을 하고,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다시 사업을 하려는 곳이 증가하면서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회사 청산을 위해 상당한 의뢰인을 나중에 인수·합병(M&A) 건으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청산하려는 입장에서는 복잡한 청산 절차를 거치느니 M&A를 통해 회사를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예전과 비교해 세제 혜택 등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가 축소되는 추세여서,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이미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를 취득한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과거 경제 위기 때도 굉장히 탄탄하고 가치가 있는 기업인데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조건으로 M&A 시장에 나오면서, 매수하고자 하는 쪽이 매도자보다 더 많아서 매도자가 매수자를 골라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매매가 그때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자본력이 탄탄한 회사 쪽에서 알토란같은 투자처를 찾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안정화 된 후에는 과거 금융위기 때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최근에는 베트남의 코로나 방역이 효과를 보면서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 급매로 시장에 나온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자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 2. 해산, 청산, 파산

법적으로 해산 사유에 해당해 해산을 결정한 후, 청산 절차를 밟아 법인 등록이 말소되면 법적으로 법인이 사라진다. 흔히 해산(解散)과 청산(清算)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법인이 원래의 영업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태가 '해산'이고, 해산으로 인해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는 것이 '청산'이다. 해산한 회사는 청산을 위한 활동만 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법인격(法人格)은 아직 존속하는 상태다. 자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법인 등록이 말소되어야 비로소 법인(격)이 사라진다. 참고로 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거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지급 불능 상태가 되어 법원의 결정으로 비자발적인 해산을 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해산과는 다르다.

주위를 둘러보면 법적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회사 문만 닫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의 투자자는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이 원칙이지만 청산 절차를 통해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으면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회사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라면 파산 절차를 밟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음대로 회사 문을 닫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에만 청산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정리하면 법적 해산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해산할 수 있고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끝나는 것이다.

### 3. 자발적 청산

#### 3.1 회사의 해산 사유(베트남 기업법 제201조 1항)

(1) 법인 존속·운영 기간이 종료된 경우

(2) 투자자의 결정에 따른 경우

기업법 제201조 2항에서는 부채를 모두 변제한 후에만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의 이런 취지는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은 '깡통회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회사의 총자산이 총부채보다 많아야만 해산과 청산을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하더라도 회사가 자동적으로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형태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소유자·사원총회를 통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3) 최소 투자자 수가 6개월 연속 부족한 경우

(4) 기업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투자허가서(IC) 회수]

#### 3.2 자발적 청산 절차

(1) 해산 관련 사전 검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가? 즉, 회사의 모든 채무의 상환 가능 여부 확인

(2) 해산 결의: 소유주(1인 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주총회(주식회사)

(3) 관련 통보: 유관 기관, 채권자, 근로자 등

(4) 계약 관련 사안 종결: 근로계약 종료,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실업보험료 완납, 외국 근로자의 노동허가서·임시거주증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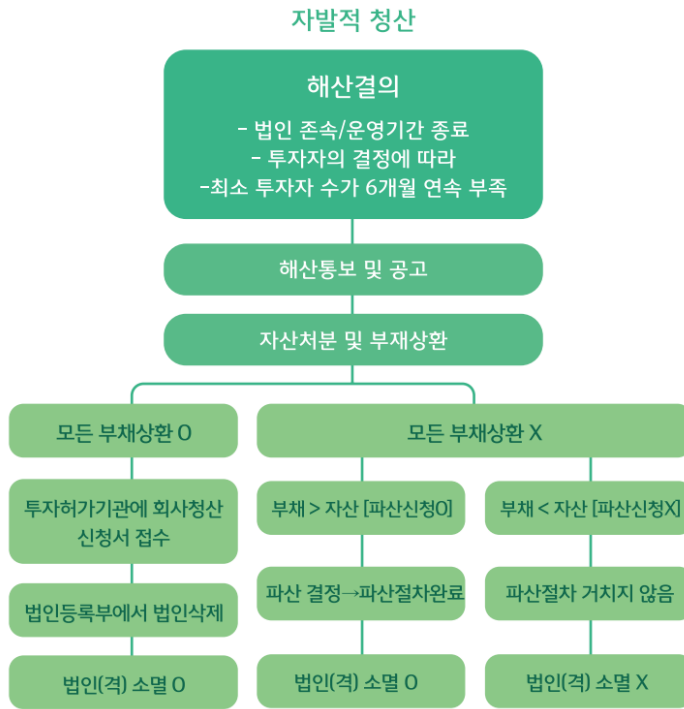
(5) 자산의 처분: 기계·설비·고정자산 처분, 사무실·공장·토지 계약 종료, 토지사용권증서 반납

(6) 납세 완료: 세금 완납 후 세금 완납 증명서 수령

(7) 은행 계좌 해지: 은행 계좌 해지 또는 관련 서류 준비 완료(차후 과실 송금이 가능하도록 조치)

(8) 인감 반납: 인감과 인감등록증 반납 후 인감 반납 확인증 수령

(9) 청산 신청: 세금 완납 증명서, 인감 반납 확인증 등과 함께 회사 청산 신청서 접수; 청산 완료 통보 수령



#### 4. 청산 · 파산 관련 주의사항

청산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모든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해산을 결의하기 전에 총자산이 총부채보다 많은지 확인하고 만약 법인의 자산이 부족하다면 해산을 결의하기 전에 투자자들이 정관 자본금을 더 출자해 법인의 자산이 부채 상황에 충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자발적 청산 절차가 아닌 파산을 통해 법인을 정리해야 한다.

특히 현재 베트남 기업법 제201조 1(d)항의 해산 사유인 기업등록증 회수로 인해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일정 기간 내에 적법한 청산 절차를 밟아 법인(격)이 소멸되어야 한다. 이 경우가 비자발적 청산이다. 베트남 기업법 제203조 5항은 투자허가서가 회수되었는데 회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관기관에 청산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등록부에서 삭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법적 대표자와 투자자는 법인의 부채에 대해 개인적인 연대책임이 있다. 투자허가서 회수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자발적인 해산을 결의했다라도 상당 기간 동안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고 12개월 동안 프로젝트가 추진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베트남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외국인 투자사업의 투자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 이것을 근거로 투자 허가기관에서 투자허가서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의 비자발적 청산처럼 법인의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파산(破産)은 청산과 약간 다른 개념이다. 법인이 채무 초과나 지급 불능 등의 상태일 때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통한 비자발적 해산을 의미한다. 파산 절차는 파산법에 따른다. 파산법의 파산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파산 신청, 파산 신청인과 법인 간의 협의, 채권자 집회, 법원의 파산 결정, 자산 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만약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파산보다 기업회생(법정관리)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

<상기 내용은 필자의 저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에서 관련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한국의 법률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역 안내 - 호아빈성

### □ 호아빈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4,590.56km<sup>2</sup> ▪ 인구: 855,804명('19년)</li> <li>▪ 도시거주 비율: 15.72%</li> </ul>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아빈성은 베트남 북서부 지역의 관문에 위치해 있으며 하노이 수도 중심부에서 6번 국도 방향을 따라 76km 떨어진 수도권 발전계획 지역내에 있음.</li> <li>▪ 호아빈성은 동쪽으로는 수도 하노이, 북쪽으로는 푸토(Phu Tho)성, 서쪽으로는 선라(Son La)성 및 타인호아(Thanh Hoa)성, 남동쪽으로는 하남(Ha Nam)성 및 닌빈(Ninh Binh)성과 인접해 있음.</li> </ul>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아빈성은 수도 하노이 서쪽에 접해 있으며, 노이바이 공항에서 93km, 하이퐁 항구에서 170km 떨어져 있음.</li> </ul>
GRDP 성장률 / 1인당 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 대비 6.75% 성장('19년)</li> <li>▪ 성 1인당 GDP: 2,503USD/년</li> </ul>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수출액: USD 7.9억불 / 총 수입액: USD 6.35억불 ('19년)</li> <li>▪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8.07%), 서비스업(6.54%), 농수산업(4.81%)</li> </ul>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건설업: 45.27%, 서비스업: 29.91%, 농수산업: 19.93%</li> </ul>
노무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내 노동가능 인구 65% ('20년)</li> <li>▪ 노동 가능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53%('20년)</li> <li>▪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비율 17.6%('19년)</li> </ul>
최저임금('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uong Son 현: 3,430,000VND=147USD (3급지)</li> <li>▪ 호아빈시, Da Bac, Ky Son, Kim Boi, Cao Phong, Tan Lac, Mai Chau, Lac Son, Yen Thuy, Lac Thuy 현 : 3,070,000VND=132USD (4급지)</li> </ul>
외국인투자 ('20.9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아빈성의 외국인투자는 총 41개 프로젝트, 587.6백만 달러</li> <li>▪ (한국) 21개 프로젝트 총 182.9백만 달러, 호아빈성에 투자하는 국가(8개) 중 1위</li> </ul>

### □ 투자환경

#### ○ 뛰어난 접근성 및 물류인프라

- (도로)

- + 호아빈에는 6, 15A, 12B번, 21 호아락(Hoa Lac)-호아빈 도로, 호치민 도로 등 6 개의 국도가 있음.
- + 지난 2년 동안 운영 및 사용되어온, 호아락-호아빈 도로는 북서부 지방뿐만 아니라 호아빈 전체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호아빈시에서 하노이까지의 도로는 6번 고속도로에 비해 20km 이상 단축되어 약 1시간의 이동 시간이 절약됨. 이 경로는 호아빈을 수도권과 북부의 핵심 경제권에 연결하여 더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이 경로를 따라 도시, 관광 및 상업 개발 기회를 열어줌. 편리한 교통은 특히 잠재적인 전략적 투자자들의 호아빈성 투자 검토에 긍정적인 면이 되고 있음.



- + 호아빈은 또한 제5 하노이 외곽 순환도로-하노이 수도권 발전계획 구역에 있는 8개 성 중 하나임. 호아빈성을 지나는 구간(약 35.4km)은 21번 국도와 평행하며 르영선(Luong Son) 산업단지 동쪽에서 Ben 시장 지역까지의 6번 고속도로와 교차함.
- + 2019년 5월 17일 총리는 하노이-목처우(Moc Chau)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투자 결정을 승인했음. 따라서 전체 경로의 총 길이는 약 85km이며, 이 중 호아빈성 지역은 (다박(Đa Bac) 현과 호아빈시를 가로지름) 약 49km이며 선라성은 약 36km (반호(Van Ho)현과 목처우 현을 가로지름)임. 앞으로 하노이-목처우 고속도로가 가동될 것이며 특히 호아빈과 지역 전반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 할 것임.
- (수로 및 항만) 호아빈의 가장 큰 상수원은 길이 151km의 다강(Song Da)임. 다강은 선라성 및 푸토성과 연결되어 호아빈성을 가로지름. 호아빈성에는 빅하(Bich Ha)항구, 바깡(Ba Cap)항구, 퉁나이(Thung Nai) 항구, 빈타잉(Binh Thanh) 항구등의 주요 항구가 있음. 또한 호아빈성에는 두개의 큰 강, 보이강(Song Boi) 및 브어이강(Song Buo)이 있으며, 작은 강과 개울 시스템과 약 1,800ha의 연못과 호수가 성에 흩어져 있음. 이곳은 또한 물을 저장 및 통제하기에 좋으며 및 양식장 운영에 적합함.



○ 관광 및 자연 조건

- 관광: 호아빈성은 강, 호수, 하천, 자연 보호 구역, 국립공원, 역사 및 문화 유적지 등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천연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호아빈성은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호아빈 문화" 로 유명함.
- 광물 자원: 호아빈성은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석탄, 석회석, 화강암, 석면, 모래, 점토, 금속 광석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토지 자원: 호아빈성의 토지는 다양한 작물에 적합한 비옥도임. 개간지, 산지는 농업 개발과 조림사업 보다는 공업단지의 개발과 확장에 유리함.
- 산림 자원: 호아빈성은 펄프, 바닥재 및 합판 산업에 유리한 다량의 목재를 보유하고 있음.

○ 인센티브 정책 지원

구분	투자지역, 분야	법인세/수입세/토지세	감면, 면제 기간
일반 공단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투자 시 (Da Bac, Mai Chau 현 등)	표준세율 15년 간 10%	최초 4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 간 50% 감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투자 시 (Kim Boi, Ky Son, Luong Son, Lac Thuy, Tan Lac, Cao Phong, Lac Son, Yen Thuy 현 등)	표준세율 10년 간 17%	최초 2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 간 50% 감면
	일반 사회경제지역 투자 시	기본세율 20%	
공통	고정자산 투자용 설비, 기계수입 시	수입세 면제	
	수출용 재화 생산용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세 면제	5년 간
	일반공단, 경제특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할 시	신용 대출 우대 적용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 2020년 9월 30일까지 호아빈성 대상 외국인투자는 총 41개 프로젝트임(총 587.6백만 달러).

○ 한국계 투자

- 한국기업의 투자는 현재 총 21개 프로젝트에 걸쳐 182.9백만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으며, 호아빈성에 투자하는 8개의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호아빈성의 가장 큰 FDI 프로젝트는 총 투자금액이 45백만 달러인 ALMINE 유한회사임.



○ 호아빈성 내 10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달러)
1	ALMINE Vietnam Co., Ltd	알루미늄 제품 생산, 가공 및 판매	일본	45,000,000
2	Phoenix Golf Resort Co., Ltd	54홀 골프장	한국	38,000,000
3	HNT VINA Co., Ltd	휴대폰용 카메라 제조	한국	35,000,000
4	Esquel Garment Manufacturing Vietnam - Hoa Binh Co., Ltd	의류 제품 및 액세서리 제조, 가공 및 판매	싱가포르	28,000,000
5	노동 보호 도구 및 의류 제조 공장	노동 보호 도구, 의류 제조 및 가공	일본	23,000,000
6	알코올 제조	알코올과 정제수 생산, 도자기 및 유리 제품 수입, 도매 및 소매	한국	20,080,000
7	전자 회로 제조	전자 회로 제조	일본	20,000,000
8	CAP GLOBAL	자동차 및 부품 제조	한국	21,000,000
9	Nissin Manufacturing Vietnam Co., Ltd	운송장비 및 기계의 부품 생산	일본	27,500,000
10	Japfa 동물 사료 가공	동물 사료 가공	인도네시아	17,000,000

\*일부 프로젝트의 사업명 비공개

□ 공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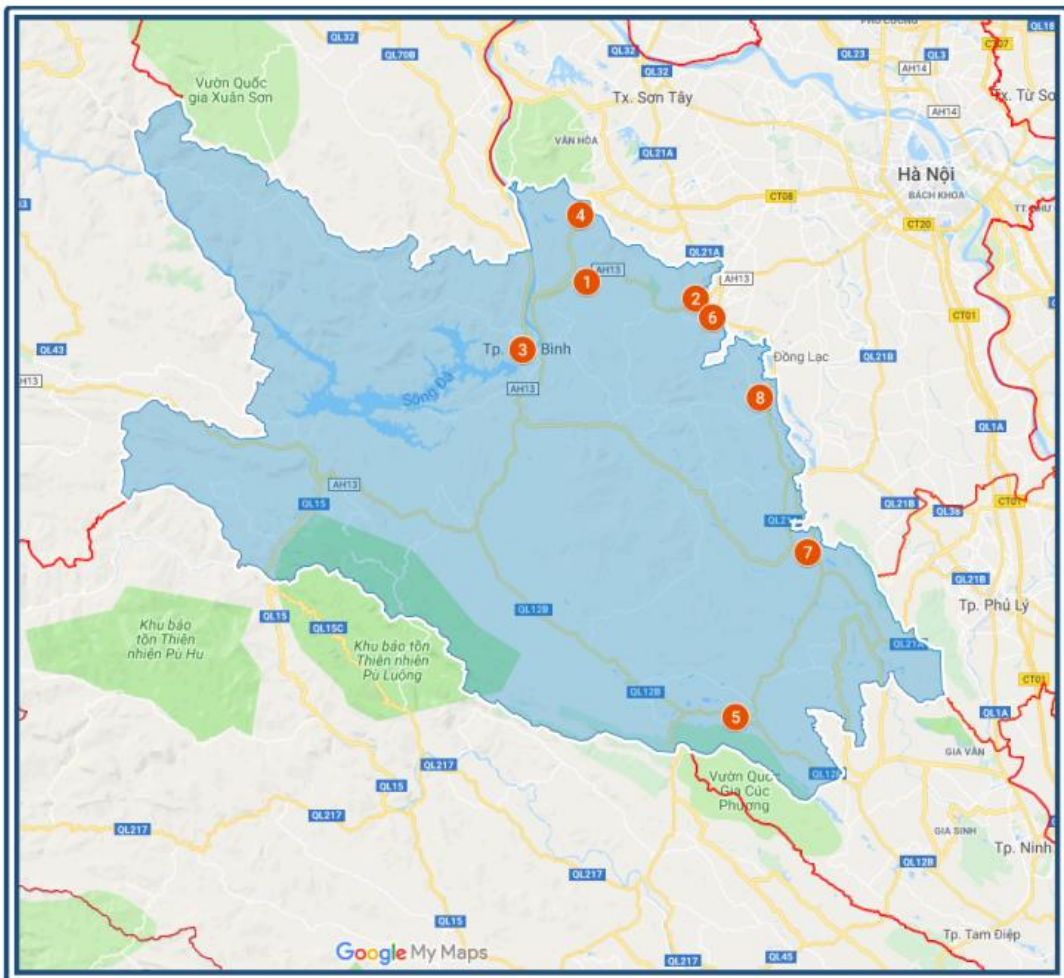
○ 주요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주요정보	투자자
1	Mong Hoa	2015년	· 총면적: 236ha · 특징: 다양한 분야 · 총 투자 프로젝트 수: 24 (FDI: 01) · 인프라 투자자: 투자 정책에 관한 결정문 발행 절차를 준비하는 중	Phu My Group Joint Stock Company
2	Da River's left banks	2009년	· 총면적: 86.37ha · 특징: 첨단, 환경 친화적 투자, 투자자본이 큰 산업 우선 · 총 투자 프로젝트 수: 23 (FDI: 07)	Da Hop Joint Stock Company
3	Luong Son	2011년	· 총면적: 83ha · 총 투자 프로젝트 수: 36 (FDI: 16) · 특징: 다양한 분야 · 입주율: 100%	An Thinh Hoa Binh Land Joint Stock Company



4	Yen Quang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면적: 200ha</li> <li>특징: 다양한 분야</li> <li>총 투자 프로젝트 수: 01 (DDI)</li> <li>인프라: 현장 정리 진행 중</li> </ul>	An Viet Hoa Binh Joint Stock Company
5	Lac Thinh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면적: 220ha</li> <li>특징: 다양한 분야</li> <li>총 투자 프로젝트 수: 03 (FDI: 02)</li> <li>인프라: 113ha가 정리되었음</li> </ul>	투자자 물색 중
6	Nhuan Trach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면적: 213ha</li> <li>특징: 다양한 분야</li> <li>총 투자 프로젝트 수: 0개</li> </ul>	투자자 물색 중
7	Thanh Ha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면적 : 282ha</li> <li>특징: 다양한 분야, 국내 투자자만 전용</li> <li>총 투자 프로젝트 수: 0개</li> </ul>	투자자 물색 중
8	South Luong Son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면적: 204ha</li> <li>총 투자 프로젝트 수: 03 (DDI)</li> <li>특징: 주요 건축재료를 생산 프로젝트</li> </ul>	An Thinh Hoa Binh Land Joint Stock Company

HOA BINH'S LOCATION MAP OF INDUSTRIAL ZONES





○ 산업 클러스터 정보

순번	클러스터명	장소	총면적 (Ha)	입주율 (%)
1	Trung Muong	Ky Son 현 Yen Quang 마을	33.675	N/A
2	Khoang U	Lac Son 현 An Nghia 마을	16.91	N/A
3	Phu Thanh	Lac Thuy 현 Phu Thanh 마을	23.63	N/A
4	Dong Tam	Lac Thuy 현 Dong Tam 마을	73.97	N/A
5	An Binh	Lac Thuy 현 An Binh 마을	19.36	24.43
6	Thanh Nong	Lac Thuy 현 Thanh Nong 마을	35.115	40.27
7	Phu Thanh II	Lac Thuy 현 Phu Thanh 마을	50	15.43
8	Dong Lai	Tan Lac 현 Dong Lai 및 Thanh Hoi 마을	28.89	29.30
9	Tay Phong	Cao Phong 현 Tay Phong 마을	10.63	N/A

□ 투자 유망분야

호아빈성은 다음 분야에 대한 투자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1. 제조가공 산업
2. 첨단 농업 생산
3. 호아빈 호수를 이용하여 생태 관광, 스포츠 및 야외활동 개발에 투자
4. 현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동물 사료, 정제된 공산품 생산
5. 의류, 가죽 제품, 연료 알코올 생산
6. 도로, 상수도 및 배수 시스템, 폐기물 및 폐수 처리 시스템 등의 사회 경제적 인프라 관련
7. 전자 부품 조립
8. 생태 관광, 문화 관광지의 건설 및 개발에 대한 투자

□ 호아빈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HOA BINH INVESTMENT, TRADE & TOURISM CONVENTION CENTER 호아빈 투자, 무역 및 관광 진흥 센터	Ms. Nguyen Vu Chi (국장)	Tel: +84-2183-881-234 Email: xttd.ttxtdt@hoabinh.gov.vn Website: http://ipa.hoabinh.gov.vn
HOA BINH MANAGEMENT BOARD OF INDUSTRIAL PARKS 호아빈성 공단 관리위원회	Mr. Tran Van Phuc (실장)	Tel: +84-2183-897-055 Email: banquanlycackhucongngghiep@hoabinh.gov.vn Website: http://ips.hoabinh.gov.vn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0. 09. 20 기준 누계		2020. 01. 01 ~ 09.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8,918	70,149	499	1,077	3,169
일본	4,595	59,870	209	463	1,730
싱가포르	2,566	55,053	173	4,652	6,768
대만	2,771	33,238	94	852	1,320
버진아일랜드(영)	864	22,063	23	243	690
홍콩	1,911	24,877	168	876	1,222
중국	3,061	21,297	271	1,080	1,877
말레이시아	641	12,805	27	58	180
태국	588	12,471	27	184	1,681
네덜란드	366	10,388	23	104	419
미국	1,063	9,399	73	70	223
전체 합계	32,658	381,529	1,947	10,360	21,208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2020. 09. 20 기준 누계		2020. 01. 01 ~ 09.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015	222,929	614	4,713	9,884
2	부동산경영	927	59,601	56	560	3,184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42	27,906	10	4,337	4,369
4	호텔, 외식서비스	884	12,330	47	64	271
5	건설	1,748	13,975	65	48	413
6	도소매, 유지보수	5,071	8,326	563	346	1,288
7	물류운수	864	5,217	44	53	183
8	채광	108	4,897	1	0.41	6
9	교육, 양성	568	4,404	41	15	79
10	정보통신	2,302	3,947	170	32	222
11	농, 임, 수산	500	3,617	7	48	136
12	예술 오락	139	3,391	4	1	4
13	기술과학전문	3,456	3,577	266	121	818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78	2,859	2	0.63	10
15	의료와 사회복지	155	1,991	8	4	21
16	행정, 지원 서비스	474	990	40	16	33
17	기타서비스	144	809	3	0.42	5
18	금융, 은행, 보험	77	753	6	0.29	282
19	기타산업					
	합계	32,658	381,529	1,947	10,360	21,208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7	2018	2019	2020.09
수 출	2,137.70	2,447.20	2,634.50	2,028.5
수 입	2,111.00	2,375.10	2,535.00	1,858.6
무역수지	26.7	72.1	99.5	170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09
각종 전화기 및 부품	45,085	50,003	51,827	36,684
섬유/직물제품	25,928	30,447	32,571	22,063
전기전자제품/부품	25,882	29,446	35,591	32,226
기계/플랜트 및 부품	12,785	16,528	18,304	18,193
신발류	14,637	16,297	18,299	12,078
수산물	8,353	8,831	8,572	6,032
목제품	7,604	8,855	10,526	8,478
수송수단 및 부품	6,967	7,985	8,500	6,527
철강제품	3,100	4,558	4,160	2,221
채소	3,517	3,822	3,764	2,504
기 타	59,912	67,951	71,337	55,852
합 계	213,770	244,723	263,451	202,858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 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09
전자제품 및 컴퓨터	33,638	42,501	51,550	45,051
기계/플랜트 및 부품	37,501	33,715	36,640	26,342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182	16,010	14,666	10,566
의류(원단)	11,446	12,914	13,329	8,428
철강제품	9,100	9,896	9,485	3,150
플라스틱 원료	7,355	9,097	9,012	5,964
유류제품	7,006	7,614	1,047	841
기타 금속	5,445	7,317	6,407	4,308
플라스틱 제품	5,408	5,906	6,526	5,162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5,464	5,741	5,886	3,801
기 타	72,551	86,801	98.96	72,254
합 계	211,096	237,512	253,508	185,867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 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09
1	미국	38,464	41,608	47,526	61,347	54,742
2	중국	21,970	35,463	41,268	41,414	32,528
3	일본	14,677	16,841	18,851	20,413	14,003
<b>4</b>	<b>한국</b>	<b>11,419</b>	<b>14,823</b>	<b>18,205</b>	<b>19,720</b>	<b>14,477</b>
5	홍콩	6,091	7,583	7,955	7,156	7,538
6	네덜란드	6,014	7,106	7,076	6,881	5,030
7	독일	5,959	6,364	6,869	6,555	4,947
8	인도	2,688	3,756	6,542	6,674	3,755
9	영국	4,899	5,424	5,776	5,758	3,659
10	태국	3,693	4,786	5,494	5,272	3,616
	기타	60,068	77,115	79,161	82,999	58,277
	합계	175,942	213,770	244,723	264,189	202,57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09
1	중국	49,930	58,229	65,438	75,452	57,602
<b>2</b>	<b>한국</b>	<b>32,034</b>	<b>46,734</b>	<b>47,497</b>	<b>46,935</b>	<b>33,028</b>
3	일본	15,034	16,592	19,011	19,526	14,627
4	대만	11,221	12,707	13,228	15,173	12,007
5	미국	8,708	9,203	12,753	14,365	10,382
6	태국	8,796	10,495	12,023	11,656	7,713
7	말레이시아	5,114	5,860	7,450	7,291	4,824
8	인도네시아	2,971	3,640	4,918	5,703	3,761
9	싱가포르	4,709	5,301	4,524	4,091	2,752
10	인도	2,746	3,940	4,147	4,538	3,329
	기타	31,999	38,395	46,523	48,341	36,025
	합계	173,262	211,096	237,512	253,071	186,05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09
수출	32,651(17.6)	47,749(46.3)	48,629(1.8)	48,178(-0.9)	34,269(-4.9)
수입	12,495(27.4)	16,176(29.5)	19,632(21.4)	21,071(7.3)	15,640(-2.0)
무역수지	20,156	31,573	28,997	27,107	18,629

자료원: KITA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6	2017	2018	2019	2020.09
반도체	4,574(59.3)	9,235(101.9)	10,939(18.5)	10,730(-1.9)	8,537(-0.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512(98.4)	7,367(193.0)	8,909(20.9)	7,970(-10.5)	5,818(1.1)
무선통신기기	5,192(22.2)	3,286(-36.7)	2,632(-19.9)	2,933(11.4)	2,648(20.5)
기구부품	1,722(39.6)	2,612(57.7)	2,332(-10.8)	2,230(-4.4)	1,619(-4.8)
석유제품	1,088(231.2)	1,978(81.0)	1,980(-0.4)	2,194(11.0)	886(-35.6)
합성수지	1,203(8.4)	1,442(19.8)	1,659(15.1)	1,624(-2.1)	1,140(-6.4)
플라스틱 제품	864(16.9)	1,152(54.9)	1,205(4.6)	1,210(0.4)	837(-9.3)
편직물	1,077(10.3)	1,118(3.8)	1,106(-1.0)	996(-10.0)	592(-17.4)
철강판	820(-2.3)	985(20.1)	1,049(6.5)	1,158(10.4)	797(-8.5)
광학기기	437(56.4)	794(81.7)	944(18.9)	946(0.2)	722(-3.7)
기타	12,676	18,808	15,874	16,187	10,673
합계	32,651(17.6)	47,749(46.3)	48,629	48,178(-0.9)	34,269(-4.9)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6	2017	2018	2019	2020.09
무선통신기기	3,145(113.9)	3,964(26.0)	4,835(21.4)	5,691(17.6)	4,081(-5.8)
의류	2,426(9.2)	2,874(17.4)	3,570(24.2)	3,646(2.1)	2,416(-14.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6(-57.4)	604(976.6)	1,137(88.3)	1,197(5.2)	824(-17.4)
신변잡화	642(19.2)	797(24.2)	980(23.1)	1,053(7.4)	803(1.3)
목재류	428(23.1)	511(19.4)	793(55.1)	657(-17.1)	464(-7.7)
컴퓨터	552(38.0)	560(1.4)	534(-4.6)	679(25.9)	847(66.0)
기구부품	268(30.7)	496(89.9)	445(-10.4)	512(15.1)	343(-2.9)
산업용 전기기기	287(28.8)	317(10.3)	416(31.1)	479(14.8)	410(14.5)
반도체	123(10.5)	374(203.7)	396(5.8)	471(19.1)	445(29.9)
영상기기	340(126.7)	400(17.7)	329(25.6)	356(-2.0)	298(10.0)
기타	4,066	5,279	6,197	6,330	4,709
합계	12,495(27.4)	16,176(29.5)	19,632(21.4)	21,071(7.3)	15,640(-2.0)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19~2020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19년(연간)	%	0.7	5.9	4.3	5.02	7.02	
	2020년 2Q	%	-12.6	-16.5	-17.1	-5.32	0.36	
	2020년 3Q	%	-7	-16.5	N/A	-2.9*~1.1*	2.62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19년(연간)	-	100	N/A	114.6	148.65	9.1
		2020년 8월	-	107.4	-22.5	114.9	N/A	-0.6
		2020년 9월	-	N/A	-14.8	N/A	N/A	3.8
	구매관리지수 (PMI)	2019년(연간)	-	N/A	51.6	105.2	50.1	N/A
		2020년 8월	-	50.1	47.3	101.7	50.8	45.7
		2020년 9월	-	50.3	50.1	N/A	47.2	52.2
소비	소비동향지수	2019년(연간)	-	100	N/A	86.2	124.3	N/A
		2020년 8월	-	99.8	N/A	N/A	86.9	N/A
		2020년 9월	-	N/A	N/A	N/A	83.4	N/A
	소매판매	2019년(연간)	-	N/A	N/A	139.5	228.16	11.8
		2020년 8월	-	90	N/A	139.2	194.62	1.9
		2020년 9월	-	N/A	N/A	N/A	196.76	4.9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19년(연간)	%	1	2.5	0.7	3.03	2.79
		2020년 8월	%	-0.3	2.4	-1.4	1.32	3.18
		2020년 9월	%	N/A	2.3	-1.4	1.42	2.98
투자	고정자산투자	2019년(연간)	%	1	N/A	1.4	4.45	N/A
		2020년 2Q	%	N/A	N/A	N/A	-2.74	N/A
		2020년 3Q	%	N/A	N/A	N/A	-8.5*~-6.6*	N/A
고용	실업률	2019년(연간)	%	2.3	5.1	3.3	4.69	1.98
		2020년 2Q	%	N/A	17.7	4.7	4.99	2.73
		2020년 3Q	%	N/A	10	N/A	7.3*~9.2*	2.5
무역	수출증가율	2019년(연간)	%	-4.2	1.5	-1.7	-7.33	8.1
		2020년 8월	%	-4.7	-18.6	-2.9	-8.36	2.5
		2020년 9월	%	-2.1	N/A	N/A	-0.51	16.3
	수입증가율	2019년(연간)	%	-2.1	-4.8	-3.5	-9.33	7
		2020년 8월	%	-9.4	-22.6	-6.5	-24.19	2.8
		2020년 9월	%	-1.6	N/A	N/A	-18.88	11.6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 전망치는 \*표기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 □ 코로나19이후 신남방3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비즈니스 현장점검 웨비나

○ 일시: '20.11.10(화)~12(목) 14:00~15:00(한국기준)

- 세부일정: 베트남(11.10(화)),

인도네시아(11.11(수)), 인도(11.12(목))

○ 참가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가신청서 제출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wWLkxsh1Ruxp-b6tnfPIhog1PD8xAtTpfuZmX2e0oc\\_lgzQ/viewform?usp=sf\\_link](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wWLkxsh1Ruxp-b6tnfPIhog1PD8xAtTpfuZmX2e0oc_lgzQ/viewform?usp=sf_link)

2. 웨비나 시작 1시간 전 SMS로 참여링크 발송

3. 전송받은 링크로 접속하여 웨비나 온라인 시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프로그램

시간 (한국기준)		내용	
11.10(화) - 베트남		11.11(수) - 인도네시아	11.12(목) - 인도
14:00-14:05	(5')	개회사	
14:05-14:20	(15')	[세션①] 현지 코로나19 동향·전망과 비즈니스 대응·확대 전략	
14:20-14:35	(15')	[세션②] 코로나19에 따른 현지 물류 동향 및 유의사항	
14:35-14:50	(15')	[세션③] 진출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및 사례	
14:50-15:00	(10')	[세션④] 고객 사전 질의 내용 답변	

### 연사정보

세션	 베트남 연사	 인도네시아 연사	 인도 연사
1	<b>이종섭</b>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b>이종윤</b>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장	<b>김문영</b> KOTRA 서남아지역 본부장
2	<b>김재홍</b> 해나로 TNS 인도차이나지역 본부장	<b>임준환</b> PT. Green Nature Farm 대표	<b>최윤성</b> CJ대한통운 차장
3	<b>조장현</b> 이랜텍베트남 법인장	<b>정민경</b> PT. COSMAX Indonesia 법인장	<b>정희철</b> 무역협회 코참인디아사무국장
4	<b>박민준</b> KOTRA 베트남비즈니스 협력센터 운영팀장	<b>복덕규</b> KOTRA 인니비즈니스 협력센터 운영팀장	<b>이인규</b> KOTRA 인도비즈니스 협력센터 운영팀장



## □ 한국-베트남 중부지역 스마트시티 로드쇼 개최 안내

- 주관: KOTRA 다낭무역관
- 기간/장소: 2020년 12월 3일(목) - 4일(금) / 힐튼 다낭
- 참석 규모: 한-베 양국 기업인 등 총 120명 내외
- 주요 내용
  - (시찰) 다낭 하이테크파크 및 IT파크 현황 및 투자유치 제도 안내
  - (세미나) 다낭시 스마트시티 현황 등 주제발표, 네트워킹 오찬 등
  - (상담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협력, 투자진출 등 (온오프라인)
- 참가신청
  - (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danang@kotra.or.kr) 회신 또는 <https://forms.gle/LFUoYHYDHBqe3sV46> 링크 신청
  - (기한) 11월 27일 신청접수 마감 \* 상담회 신청은 11월 23일 마감

## □ VIMEXPO 2020 개최 안내

(베트남 제조업 및 지원산업 국제전시회 Vietnam International Supporting Industry & Manufacturing Exhibition)

- 주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Industry Agency(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C.I.S Vietnam Advertising & Exhibition JSC
- 전시분야: 섬유 및 의류 산업, 신발 산업, 전자 산업, 자동차 제조 및 조립 산업, 기계 산업, 첨단기술 산업
- 기간: 2020년 12월 9일(수)-11일(금)
- 장소: Hano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 I.C.E Hanoi  
(No.91 Tran Hung Dao Street, Hoan Kiem Dist., Hanoi)
- 웹사이트: <https://www.vimexpo.com.vn>
- 문의처:
  - Vietnam industry Agenc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s. Thu Thao (E: thaoptt@moit.gov.vn / M: 0975351983)  
Ms. Minh Thao (E: thaoptm@moit.gov.vn / M: 0912310782)



SUPER JUNIOR-D&E

Yesung

TAEMIN

#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20

*Ajean*

2020. 11. 2 Mon - 13 Fri , <https://kbee.kr>

Ailee

SOYOU

Hwang Chiyeul

LYn

Hosted b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ganized b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